

디지털 MICE 인프라 구축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디지털 공간 조성사업 선정

군산시는 전북 MICE 산업의 중심,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2년 디지털 MICE 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온라인 회의 수요 증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디지털 회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군산시·GSCO가 함께해 2억2천만원(국비 1억1천만원) 사업비를 확보하고 하반기 내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에 국제회의 등 중대형 규모 행사에 맞춘 고화질 LED 스크린 및 현장 중계형 카메라를 설치 하이브리드형 회의실을 구축한다.

또 중소형 회의실에 이동형 회상회의 스튜디오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화상회의, 수출상담회 등 중소규모 회의의 실을 구축한다.

또 GSCO는 도내 유일한 컨벤션센터로 전북 마이스산업을 선도하며 전국우수시장발달회 등 국내외 행사를 유치해왔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

된 상황 속에서도 지난 2021년 출범한 전북 MICE 뷰로와 함께 한국수소및신에너지 학술회의, GSTC(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아·태 컨퍼런스 등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현석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도내 유일한 지식코에 디지털 MICE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행사 및 회의 유치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SCO는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해제조치로 대규모 행사 등이 활발히 개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한 특화 MICE 행사를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시 구암동은 프루브(PROVE)카페(대표 김선민)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58만원을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려운 이웃 위해 작은 보탬”

군산시 구암동 프루브 카페 이웃사랑 성금 기탁

군산시 구암동은 프루브(PROVE)카페(대표 김선민)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58만원을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기탁 받은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돼 관내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소외된 가구를 위해 사용 될 예정이다.

프루브(PROVE) 카페는 매년 추수감사절 및 명절에 기부런(run) 행사를 개최해 3년째 구암동에 기부하고 있으며 매출액의 일정액을 매달 정기 기부하는 착한가게에 가입,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사랑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

프루브 카페 김선민 대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성금을 기탁했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진미영 구암동장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프루브 카페에 감사드린다”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구암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군산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사용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19만3,232필지로 전년 대비 6.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 최고지가는 수송동 롯데마트 부지로 m당 200만4,000원이다.

최저지가는 임피면 보석리 소재 승하원 부지이며 m당 2,220원으로 확인됐다.

시는 결정된 지가를 시청, 읍·면·동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라미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5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통해 상세히 확인 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 단체 관광객 유치 본격 나서

익산시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맞춰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2022 전북에 온(ON) 페스타(Festa)에 참석했다. 익산시 등 14개 시군과 전북도의 공동협력 사업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에는 여행업체와 홍보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넘게 침체된 단체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1부 관광상담회와 2부 관광설명회로 구성됐다.

1부 관광상담회는 코로나 시대 지방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초 강연, 상담회, 토크 콘서트 등이, 2부 관광설명회는 태권도 공연과 희망의 꽃나무 만들기 환경 퍼포먼스, 14개 시군 관광 자원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시는 국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여행사, 관광 전문가, 외국인 인플루언서 등에게 비대면 안심관광지, 사진찍기 좋은 관광지, 체험 여행 등을 소개하며 1:1 상담을 실시했다.

【익산=이재훈기자

익산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첫 시행

농식품부 시범사업 공모 선정

익산시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한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공모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에 참여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중 선정된 500

명에게 검진 비용이 지원된다.

검진 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하며, 근골격계·심혈관계·골절위험도·폐활량·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진행된다.

특히, 시는 검진 비용 전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지원 외의 자부담 10%에 대해서도 시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이나 남성 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농작업 질환 관련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 확보된 신청자 명단 중 우선순위를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검진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며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익산시가 문화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 특색을 살린 콘텐츠 개발에 나선다.

시는 '시민이 다(多)같이 만들고 누리'는 익산다움 문화도시'를 주제로 장단기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오택립 시장 권한대행과 지역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대표 관련 부서 간부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을 통해 최근 문화 트렌드 변화와 국내외 문화정책 동향 분석, 지역 문화실태 조사, 익산시 문화발전 비전과 발전 방향 제시, 장단기 문화정책 등을 개발하여 새정부 출범과 문화자치 시대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 심층 면담조사와 시민 설문, 중간·최종보고회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오택립 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100세 시대 등을 맞아 시민이 문화에 숨을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운영

익산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를 개설한다. 창구는 익산세무서와 합영 북부청사 1층에 마련되며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국제청으로부터 모부채움신고

를 받은 납세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그 밖의 납세자의 경우 방문 시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창구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지나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를 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홈택스와 연계된 위택스를 활용하면 된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 채움신고서 대상지는 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 가능하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 위원 위촉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는 지난 27일 의정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 7명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민간 전문가 중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서 대학교수 3명, 변호사 2명, 시민단체 관계자 2명이다.



지난 1월 13일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어 제240회 임시회에서 박철원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번에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위원들은 앞으로 3년 동안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의원의 경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정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유재구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며,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커진 만큼 이에 걸맞은 책임성을 갖추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